

여성에게는 왜 농민수당 주지 않나요?

전남, 가구당 연 60만원 '경영체 등록 경영주' 1명만 지급 경남 '공동경영주'·경기도 '농업종사자' 개인별 혜택 받아 전남 농업인 절반이 여성...남성 중심 수당 지원 개선해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우 전남 여성농민에게도 농민수당을 지급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 농촌 지역에서 여성 농민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에서다. 이수미 농업농촌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2일 전남도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주최로 열린 '전남 여성농민 정책 토론회'에서 전남 여성농민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요구했다. 이 부소장이 발제문을 통해 "전남도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농업인은 지난해 기준 24만 5906명이지만 이중 여성 경영주는 8만 6279명(35.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남지역 농업인 27만 8430명 중 절반 이상인 14만 6330명(52.6%)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은 수치라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남지역 여성 농민들은 "지자체의 영농지원이 대부분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여성 농민들은 똑같이 노동을 하면서도 농민수당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농민의 경우 여전히 보조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각종 영농지원이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도민에게 가구당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급 대상이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농업경영체는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경영체 단위로 농가를 통합·관리하는 제도지만 부부가 함께 농업생산에 참여할 경우 주로 남편을 경영주로 등록하기 때문에 지원은 남편만 받을 수 있다. 여성 농민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지급하는 농민수당조차 여성농민들은 남편에게 나눠달라고 부탁해야하는 처지"라고 토로한다. 나주에서 4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신춘자씨는 "수십년간 농사를 짓느라 온몸이 병들었는데, 남편이 경영주라는 이유로 내가 농민수당을 못받는다는 사실이 억울하다"며 "여성농민이 일할 권리만

있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젊은이들이 농촌에 살러 오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성농민단체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도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업경영체 경영주 대다수가 남성에 편중돼 여성농민들이 배제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공동경영주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농민들은 경남도의 경우 농업경영체 경영주 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에게도 개인당 연 3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는 농업경영체와 관계 없이 실제 농업종사 농민 개인에게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점을 강조했다. 가구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라는 점에서 여성농민 역시 배제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공동경영자의 법적위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기계 구매, 국민연금 보조금, 각종 육성사업 등 대부분의 지원이 경영주 중심으로

로 이루어지고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의 동의 없이 어떤 지원도 받지 어렵다는 것이다. 또 농업의 소득이 3700만원 이하면 겸업이 가능한 경영주와 달리 공동경영주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많은 여성농민들이 양보호사 등으로 겸업을 하고 있는 만큼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여성농민들의 요구를 청취했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고송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회장은 "도시의 경우 부부가 함께 경영을 해도 각각 인정되는데, 농촌에서는 가구가 묶이고 남편이 대표성을 갖는 게 당연시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공동경영주인 여성에게도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에덴병원처럼 헌혈해요 3일 오전 광주시 북구 에덴병원 임직원들이 하절기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해 헌혈캠페인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덴 병원은 1년에 두번씩 27년째 헌혈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여순사건 조사 기간 연장' 개정안 발의

2027년 10월 5일까지...피해 신고 기간도 신설

기본소득당 유혜인 국회의원은 3일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국회의 견제·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완료 기간을 2027년 10월 5일까지 3년 연장했다. 피해 신고 기간도 2026년 1월 20일까지 새롭게 됐다. 국회 역할을 강화해 여순사건 위원회가 매년 1회 활동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가 추천하는 6명을 여순사건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하도록 했으며, 정부 측 6명·국회 추천 6명·민간위원 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원활한 사건 처리와 위원회 운영이 이뤄지도록 여순사건 위원회의 국회 보고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며 "국회는 여순사건 위원회가 '직무 유기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활동 경과를 철저히 감독하고 적극적인 사건 처리를 추동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목 기자 kroh@kwangju.co.kr

"정부 신규 댐 건설은 기후문명적 발상"

광주전남환경단체, 철회 촉구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가 정부의 신규 댐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등은 3일 순천시 청소년 수련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댐은 기후위기의 대응이 될 수 없다. 댐 건설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는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댐 추가 설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가장한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후문명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전남지역 3개 댐(화순, 순천, 강진)을 포함해 전국 14개 신규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단체는 댐은 홍수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20년 구례 홍수, 지난해 오송참사 모두 제방의 부실관리와 재난 대응 부재로 인한 인재였다는 것이다. 댐 신설로 최대 220mm 수준의 강우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300mm 이상 폭우가 내린다면 댐들은 오히려 또 다른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강과 하천에서 댐과 같은 불필요한 구조물을 해체하고 자연성을 회복하는 자연기반 해법을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아·치수 정책도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유역 협치 기반,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기조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북구, 저소득 주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

생활안정지원금 예결위 통과...본회의 의결시 10일부터 4만314명에

광주시 북구가 취약계층에게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안이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3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이날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북구는 지역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만여명에게 각 10만 원을 상생카드 방식으로 지급

하는 예산안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했다. 북구는 고물가로 지역내 차상위 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지역 자영업자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안을 마련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 계층(기초생활 수급자 3만 3724명, 차상위 계층 6590명)에게 상생카드를 지원해 경제활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북구는 소비 촉진의 효과로 자영업자들의 승통을

떠우게 한다는 점에서 1석 2조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총 예산은 40억여원으로 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북구는 추석전인 이달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지역 상생카드의 연매출액 30억 이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북구가 지원예산안 방침을 내놓자 의회 일각에서는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록신문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